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 춘 화*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Using Spss Program

Chun-Hwa Ju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3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5월~7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최종 227부를 SPSS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tukey post 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학년,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자살생각은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beta=.346, p=.000$), 자아존중감($\beta=-.290, p=.000$)으로 설명력은 33.2%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to July 2015 for 3 nursing student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tukey post 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with grad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in sex, grade, grad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showed differences in school life satisfact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while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The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were depression($\beta=.346, p=.000$) and self-esteem($\beta=-.290, p=.000$).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was 33.2%. This study suggests that a systematic education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s needed to reduce the suicidal ide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Depression, Nursing student,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대학생 시기의 정체감 확립, 부모로부터의 독립, 대학생활 적응, 직업 선택 등의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특성상 단기간의 이

론과 실습의 병행으로 인하여 과도한 양의 학습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임상실무 현장에도 조기에 노출이 되어서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1].

우울은 가장 유병율이 높은 질환의 하나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평가지표로 흔히 활용되고 있는데 정

*Department of Nursing, UI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9, 2017

Revised October 22, 2017

Accepted October 25, 2017

신건강 문제 중에서 우울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간호대학생의 35%가 중증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우울 증상이 있으면 삶의 흥미를 잃게 되고, 인지 기능,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력, 사회생활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또한 우울은 자살과 관련된 사고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학생의 경우는 특히 우울이 더 강력하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스트레스[5][6][7][8], 대처[4], 사회적지지[4], 수면의 질[9], 우울정도 요인[7], 자아존중감[10][11], 자아효능감[8]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자살생각[5][6][9]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이고, 특히 10대~30대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12].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대학생의 자살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의 중요한 문제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대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대인관계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독립과 의존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까지 포함된 내적인 문제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13]. 자살생각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선행하는 일련의 사고과정으로, 자살행동을 예견하는 중요지표이다[14].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35~42%가 자살시도를 했었고, 치명적인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14].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선행 연구는 주로 스트레스[5][6][9][15][16][17][20], 우울[5][9][15][17], 수면의 질[9], 자아존중감[15][16][18][17][19][20], 외모만족도[17]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대학생의 자살 위험요소로는 우울[5][9][15][17]이 지속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왔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40%에서 우울 증상이

발견되었고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 높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정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영향요인을 파악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감정의 필수요소이고, 정신적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개인과 사회생활 영역의 실행에서 중요하다[21].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인자로 자아존중감을 보고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6][17][18][19].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우울 발병에 취약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13].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설명하는 유력한 변수로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슬픔, 우울, 무기력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26].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자살 충동의 영향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자원이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 충청지역 소재 3개 간호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자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익명성 보장, 비밀유지,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 * 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예측인자 12개의 조건에서 산출된 표본수는 184명이었으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24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총 24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이 불충한 13부를 제외하고 227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22]. BDI는 총 21문항 0점에서 3점까지로 측정되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91, 본 연구의 Cronbach's α =.90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genberg[21]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제[18]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을 실시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92, 본 연구의 Cronbach's α =.82이었다.

2.3.3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I)을 신민섭 등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4][25]. 총 19문항으로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87, 본 연구의 Cronbach's α =.90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은 t-test, one way ANOVA, 사후검정은 tukey post hoc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2명(14.1%), 여성 195명(85.9%)이었다. 나이는 20세 85명(37.4%)로 가장 많았고, 22세 이상 63(27.8%), 19세 이하 42명(18.5%), 21세 37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78명(34.4%), 3학년 63명(27.8%), 2학년 46명(20.3%), 4학년 40명(17.6%)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122명(53.7%), 있는 경우는 105명(46.3%)이었다. 거주유형은 기숙사 115명(50.7%), 자취 68명(30.0%), 부모님과 함께 19명(13.0%)이었다. 가족의 평균 수입은 400만원 이상 67명(29.5%), 200-300만원 62명

(27.3%)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학점은 3.0-3.5 97명 (42.7%), 2.0-3.0 48명(21.1%)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 110명(48.5%)로 가장 높았고, “만족” 78명(34.4%), “불만족” 22명(9.7%), “매우 만족” 14명(6.2%), “매우 불만족”은 3명(1.3%)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27)

Variables	Characteristics	n(%)
Sex	Male	32(14.1)
	Female	195(85.9)
Age	≤19	42(18.5)
	20	85(37.4)
	21	37(16.3)
	≥22	63(27.8)
Grade	Freshman	78(34.4)
	Sophomore	46(20.3)
	Junior	63(27.8)
	Senior	40(17.6)
Religion	No	122(53.7)
	Yes	105(46.3)
Residence Type	With Parents	19(13.0)
	Self-boarding	68(30.0)
	Dormitory	115(50.7)
Average Family Income	<100	14(6.1)
	100-200	34(15.0)
	200-300	62(27.3)
	300-400	48(21.1)
	>400	67(29.5)
Average Credit	<2.0	11(4.8)
	2.0-3.0	48(21.1)
	3.0-3.5	97(42.7)
	3.5-4.0	42(18.5)
	>4.0	29(12.8)
College Life Satisfaction	Completely dissatisfied	3(1.3)
	Somewhat dissatisfied	22(9.7)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110(48.5)
	Somewhat satisfied	78(34.4)
	Completely satisfied	14(6.2)

3.2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10.8±7.67점, 자아존중감은 29.98±5.21점, 자살생각은 3.42±4.21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정도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Self esteem, Suicidal ideation (N=227)

Characteristics	Mean±SD	Min	Max
Depression	10.8±7.67	0	41
Self-esteem	29.98±5.21	16	40
Suicidal ideation	3.42±4.21	0	17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우울은 1학년 9.01±7.2점, 2학년 13.65±8.5점, 3학년 9.56±6.64점, 4학년 8.88±8.1점으로 나타났다 (F=4.449, p=.005). 사후검정 결과, 2학년이 1, 3, 4학년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우울은 “매우 불만족” 8.00±7.8점, “불만족” 14.82±7.9점, “그저 그렇다” 12.04±8.0점, “만족” 7.01±5.6점, “매우 만족” 4.79±5.5점으로 나타났다(F=10.135, p=.000).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인 경우보다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인 경우가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성별(t=-1.661, p=.098), 연령(F=1.262, p=.288), 종교(t=.699, p=.485), 거주 유형(F=.132, p=.876), 가족 평균소득(F=8.41, p=.500), 평균 학점(F=1.677, p=.156)은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
 Table 3. Depression,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7)

Variables	Characteristics	Depression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n(%)	Mean ±SD	t/F(p)	Tu key	Mean ±SD	t/F(p)	Tu key	Mean ±SD	t/F(p)	Tu key
Sex	Male	32(14.1)	8.00±6.1	-1.66 (.098)		31.69±4.6	2.017 (.045)		2.23±3.8	-1.67 0 (.096)	
	Female	195(85.9)	10.42±7.9			29.70±5.2			3.61±4.2		
Age	≤19	42(18.5)	10.05±9.0	1.262 (.288)		29.62±5.7	.362 (.780)		2.95±3.6	1.015 (.387)	
	20	85(37.4)	11.27±7.4			29.68±4.7			4.04±4.19		
	21	37(16.3)	8.92±6.7			30.27±5.4			3.27±4.6		
	≥22	63(27.8)	9.17±7.6			30.44±5.4			2.98±4.3		
Grade	1) Freshman	78(34.4)	9.01±7.2	4.449 (.005)	1,3,4 <2	30.59±5.0	5.320 (.001)	2,3 <4	3.71±4.0	.265 (.851)	
	2) Sophomore	46(20.3)	13.65±8.5			28.07±4.5			3.46±3.89		
	3) Junior	63(27.8)	9.56±6.6			29.27±5.3			3.32±4.4		
	4) Senior	40(17.6)	8.88±8.1			32.10±5.3			3.00±4.7		
Religion	No	122(53.7)	10.41±7.3	.699 (.485)		29.36±5.4	-1.93 7 (.054)		3.75±4.3	1.271 (.205)	
	Yes	105(46.3)	9.70±8.2			30.70±4.9			3.04±4.1		
Residence Type	With Parents	44(19.3)	10.61±6.9	.132 (.876)		29.36±5.0	1.485 (.229)		3.00±3.4	.437 (.646)	
	Self-boarding	68(30.0)	9.99±8.5			30.87±5.6			3.29±4.4		
	Dormitory	115(50.7)	9.93±7.5			29.69±5.0			3.66±4.34		
Average Family Income	<100	14(6.1)	11.93±11.3	.841 (.500)		28.93±6.7	.558 (.693)		3.64±5.5	.625 (.645)	
	100-200	34(15.0)	10.91±8.4			29.15±5.3			3.32±4.3		
	200-300	62(27.3)	10.66±7.7			29.89±5.3			3.97±4.7		
	300-400	48(21.1)	9.35±6.6			30.27±5.2			2.72±3.1		
	>400	67(29.5)	8.99±7.0			30.49±4.8			3.28±3.7		
Average Credit	1) <2.0	11(4.8)	10.82±8.3	1.677 (.156)		29.82±5.1	2.638 (.035)	2<5	6.64±7.4	1.778 (.134)	
	2) 2.0-3.0	48(21.1)	12.06±9.8			28.52±5.7			3.31±4.0		
	3) 3.0-3.5	97(42.7)	10.20±7.2			29.73±5.0			3.29±4.1		
	4) 3.5-4.0	42(18.5)	8.76±6.4			30.69±4.8			2.98±3.6		
	5) >4.0	29(12.8)	8.03±6.3			32.24±5.1			3.45±3.7		
College Life Satisfaction	1) Completely dissatisfied	3(1.3)	8.00±7.8	10.13 5 (.000)	2.3,4 >5	29.67±4.6	9.170 (.000)	2.3,4 <5	5.33±4.73	4.182 (.003)	2>4,5
	2) Somewhat dissatisfied	22(9.7)	14.82±7.9			26.41±6.4			5.41±5.4		
	3)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110(48.5)	12.04±8.0			28.88±4.74			3.97±4.3		
	4) Somewhat satisfied	78(34.4)	7.01±5.6			31.95±4.6			2.36±3.5		
	5) Completely satisfied	14(6.2)	4.79±5.5			33.29±5.1			1.23±1.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 학년, 평균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남자 31.69±4.7점, 여자 29.70±5.3점으로 나타났다($t=2.017, p=.045$). 남자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1학년 30.59±5.0점, 2학년 28.07±4.5점, 3학년 29.27±5.3점, 4학년 32.10±5.31점으로 나타났다($F=5.320, p=.001$). 사후검정 결과, 학년은 4학년이 2학년, 3학년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학점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2.0이하 29.82±5.1점, 2.0-3.0 28.52±5.7점, 3.0-3.5 29.73±5.0점, 3.5-4.0 30.69±4.8점, 4.0이상 32.24±5.1점으로 나타났다($F=2.638, p=.035$). 사후검정 결과 평균 학점은 2.0-3.0보다 4.0이상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매우 불만족” 29.67±4.6점, “불만족” 26.41±4.64점, “그저 그렇다” 28.88±4.74점, “만족” 31.95±4.6점, “매우 만족” 33.29±5.1점으로 나타났다($F=9.170, p=.000$).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보다 “매우 만족”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은 연령($F=.362, p=.780$), 종교($t=-1.937, p=.054$), 거주 유형($F=1.485, p=.229$), 가족 평균소득($F=.558, p=.69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5.33±4.73점, “불만족” 5.41±5.4점, “그저 그렇다” 3.97±4.3점, “만족” 2.36±3.5점, “매우 만족” 1.23±1.5점으로 나타났다($F=4.182, p=.003$).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매우 만족”과 “만족”인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성별($t=-1.670, p=.096$), 연령($F=1.015, p=.387$), 종교($t=1.2719, p=.205$), 거주 유형($F=.437, p=.646$), 가족 평균소득($F=.625, p=.645$), 평균 학점($F=1.778, p=.13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우울은 자살생각($r=.539, p=.000$)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r=-.665, p=.000$)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살생각은 자아존중감($r=-.521, p=.000$)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N=227)

Variables	Depression r(p)	Self -esteem r(p)	Suicidal ideation r(p)
Depression	1		
Self -esteem	-.665 (.000)	1	
Suicidal ideation	.539 (.000)	-.521 (.000)	1

3.5 연구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행에 앞서 기본가정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가 .557로 0.1이상이었 고, 분산팽창인자 범위는 1.794로 다중 공선성 문제를 배제 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대학생활 만족도를 포함하여 우울, 자아존중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

귀분석 결과, 자살생각의 회귀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6.588, p<.001), 이 모델의 설명력은 33.2%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beta=.346$, p=.000), 자아존중감($\beta=-.290$, p=.000)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N=227)

Variables		B	β	t	p
Suicide ideation	constants	8.568			
	Depression	.190	.346	4.727	.000
	Self-esteem	-.236	-.290	-3.970	.000
R ² =.338 Adj. R ² =.332, F=56.588,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우울 관리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63점 만점에 평균 10.8점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도 10.6점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벼운 우울상태”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경한 우울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추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3.42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4.87점[18], 5.04점[3]보다는 자살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29.9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0.4점[14]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우울은 2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7][15]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간호대학생 2학년의 우울이 다른 학년보다 높은 이유는 2학년이 되면서 전공에 입문하고 교내 실습이 시작되면서 과부담이 되면서 새로운 적응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우울은 대학생활에 만족을 하지 않는 경우에 우울 상태가 심한 경우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1][15]에서도 학과 만족도가 ‘약간 불만족’인 경우가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이 만족도가 낮을수록 더 우울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20].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 2학년에게 우울과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확대하여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 학년, 학점, 대학생활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유는 여학생은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하는 반면, 남학생은 문제중심 대처를 하기 때문에 사료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여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18].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2학년과 3학년보다 4학년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4학년이 되면 1.2.3학년 간호학과와의 엄격한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을 모두 경험을 하고 예비 간호사로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서 2학년과 3학년 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이 2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의 경우도 2학년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우울에 대한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점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4.0이상이 2.0-3.0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으로 상위 성적그룹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4]. 이와 같은 결과는 성적이 자아존중감의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18]에서도 대학 생활에 “만족”이 “불만족”보다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활 만족이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대학 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만족”과 “매우만족” 보다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하고, 학과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보다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인 경우에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불만족이 만족보다 자살생각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9][15][18]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생각에 대학생활 만족도가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학년별 체계적인 파악과 추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자살생각($r=.539, p=.000$)은 정적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r=-.521, p=.000$), 자아존중감과 우울($r=-.665, p=.000$)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우울할수록 자살생각이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3][5][9][16][17].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우울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결국은 우울이 감소되면 자살생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설명력은 33.2%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우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5].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생각에 우울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살생각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연구[7][18][19]에서도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

소가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우울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모든 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5년 5월~ 7월까지 대전, 충청지역 소재 3개 대학의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240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227부를 SPSS18.0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tukey post 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 학년, 평균 학점,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살생각은 정적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beta=.346, p=.000$), 자아존중감($\beta=-.290, p=.000$)으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3.2%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가 우울,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라 한계점을 갖고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Study*, 31, 8, pp. 855-860, November, 2011.
- [2] S. H.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3, pp. 379-390, September, 2001.
- [3] G. H. Kim, H. J. Kim, "The Effect of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4, pp. 500-507, December, 2006.
- [4] Y. K. Kwag, "Comparison of Stress, Copying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Depression Sever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4, 2, pp. 125-134, December, 2014.
- [5] S. K. Cha, E. 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 4, pp. 650-658, 2014.
- [6] M. K. Shin, H. R. Yi, J. S. Won, "Influence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 4, pp. 419-428, February, 2013.
- [7] S. J. Yu, M. R. Song, E. M.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 1, pp. 71-80, February, 2014.
- [8] Y. R. Yeom, K. B. Choi, "The Effect of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s on Nursi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East-west Nursing Research*, 19, 2, pp. 104-113, November, 2013.
- [9] E. H. Hwang, K. H. Kim, S. J. Shin, "The Effect of Life Stress,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1, 3, pp. 239-248, August, 2016.
- [10] G. H. Kim, H. J. Kim, "The Effect of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4, pp. 500-507, December, 2006.
- [11] H. I. Le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 2, pp. 109-118, June, 2010.
- [12] Statistics Korea, 2015,
- [13] Y. M. Le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Suicide Attemp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 3, pp. 397-411, June, 2015.
- [14] W. M. Reyn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8.
- [15] S. S. Baek, E. H. Ha, M. S. Song,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Undergraduates on Suicidal Idea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8, 4, pp. 157-163, February, 2012.
- [16] H. Y. Jung, K. S. Lee,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Mental-Health and Suicidal-Ideation in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3, 2, pp. 328-339, June, 2015.
- [17] I. S. Lee,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 5, pp. 2487-2500, October, 2011.
- [18] H. Y. Jung, K. I. Jung, "A Study on the Suicidal Ideation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 3, pp. 149-160, September, 2013.
- [19] G. H. Kim, K. H. Kim, "Anger,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Female Students in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3, pp. 233-241, September, 2011.
- [20] Y. M. Lee, S. Y. Park, M. J. Kim, "Economic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6, 2, pp. 151-162, June, 2017.
- [21]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s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347. 1965.
- [22] A. T. Beck,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Philadelph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1978.
- [23]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pp. 107-129, 1974.
- [24] A. T. Beck, M. Kovacs, A.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2, pp. 343-352. April, 1979.
- [25] M. S. Shin, K. B. Park, K. J. Oh, Z. S. Kim,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 1, pp. 1-19, 1991. January.
- [26]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 Freeman, 1975.
- [27] S. J. Yu, M. R. Song, E. M.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 1, pp. 71-80, February, 2014.

저자약력

정 춘 화(Chun-Hwa Jung)

[정회원]



- 2008. 2월 : 전북대학교 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2년 9월~현재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 건강, 간호, 우울, 자살 등